

데스크칼럼

이성오

서울취재팀장



전북이 야심 차게 추진 중인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안전성과 환경적 영향에 대한 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8077억 원 규모의 ‘새만금 국제공항’의 사업 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비록 1심 판결이긴 하지만 올해 안에 착공해 2029년에 개항하려던 공항 건설 계획은 차질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군산 주민과 시민단체 등 1297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국토부가 항공기의 조류 충돌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공항 부지와 인근에 있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새만금공항 부지의 연간 조류 충돌 예상 횟수는 최대 45.92회(반경 13km 기준)로 인천국제공항(2.99회), 군산공항(0.048회)의 수십~수백 배다. 지난해 12월 여객기가 새 폐와 충돌하며 참사가 발생한 무안 국제공항(0.072회)의 637배에 달한다.

무안국제공항의 재개항은 더뎠다.

무안국제공항은 국토부가 12·29 참사 이후 3개월(1월·4월·7월) 단위로 폐쇄 기간을 연장해왔고, 최근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연장했다. 하지만 로컬라이저 개선공사

국토서남권 관문 공항 이대로 좋은가

등 안전시설 설치와 보완은 물론이고 유가족들이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을 요구하고 있어 연내 재개항은 불투명한 실정이다.

실제 로컬라이저 개선사업은 유가족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둔덕 철거 및 교체작업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다.

유가족들은 재개항에 앞서 최소한 사고원인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이에 따른 법적 조치 등을 선행하고 개선된 항공시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안국제공항은 새로 건설 중인 새만금국제공항과 ‘국토 서남권 관문공항’을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무안국제공항 입장에서 보자면 광주 민·군 공항이 모두 이전에 체계를 갖추고 활성화를 이루지 못한 상황인지라, 어찌 보면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이 늦어지는 것이 다행일 수도 있다.

하지만 새만금국제공항 앞에 닥친 여러 가지 차질과 제약조건에도 불구하고 전부의 정치권과 다수 지역민들은 공항 건설에 차질을 있을 수 없다며 올해 안 착공을 몰아붙이고 있다.

호남 지역민 입장에서 무안공항이든 새만금공항이든 서남권 관문공항이 두 곳이나 생기게 되고 서로 경쟁하는 체제가 되니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호남의 중심인 광주광역시에서 이동 거리를 따지면 무공항 모두 1시간 안팎에 위치한다.

하지만 전국에서 가장 빨리 고령화하고 인구가 소멸하는 호남에 두 개의 관문공항이 필요한가를 물으면 당장 ‘예’라고 답하기 어려워진다.

새만금국제공항은 김대중 정부가 추진하던 김제공항이

항공 수요가 과다 예측됐다며 감사원 감사로 인해 무산된 이후 추진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되며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됐고, 기본 계획이 확정됐고,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3년 8월 사업 필요성을 재점검하겠다고며 중단했지만, 지난해 7월 한국교통연구원 등이 진행한 사업 적정성 검토에서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재개됐다.

무안국제공항은 낙후된 국토 서남권 개발의 축이고,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은 전북이 오메발망 고대하는 새만금 단지 개발의 핵심이다.

서남권에 관문공항을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건설하는 것은 낭비가 아니냐고 하겠지만, 세계로 향하는 관문이 될 사회간접자본 구축과 함께 어떻게든 지역발전을 일궈보겠다는 지역민들의 의지가 담겨 있다.

전국 공항 15개 곳 중 11곳이 지난 10년간 만성 적자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돈을 들여 가덕도, 대구·경북, 제주 2공항 등을 짓는 이유도 이와 다르지 않다.

두 국제공항이 성공하려면 제대로 된 지역개발사업 프로젝트가 연계돼야 한다. 무안공항 활성화와 새만금공항 신규 건설은 갈수록 쇠락하며 수도권에 밀려나고 있는 지방을 다시 부흥시킬 복안이 뒷받침돼야 결실을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두 관문공항의 역할도 나누는 것도 생각해볼 만하다. 이제와 하나를 포기하라고 강요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교통망이 잘 연계된 무안공항을 서남권허브공항으로 활성화하고 새만금공항은 미래모빌리티사업 실증기지로 건설하는 것은 어떨까.

기고

고향사랑기부제, 대한민국의 미래

김순권

(사)광주동구자원봉사센터장



대한민국은 지금 ‘지방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수도권에 인구와 자원이 집중되면서 지방은 점차 활력을 잃고 있으며, 청년 유출과 고령화, 생활 인프라 부족 등으로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교육, 문화, 의료 서비스의 불균형까지 겹치며 생활 여건은 악화되고, 이는 다시 인구 유출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든다.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절실함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고향사랑기부제’는 단순한 기부 제도를 넘어 지방을 살리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마중물이 될 수 있다.

기부자가 고향이나 응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선택해 기부하고 세계 혜택과 답례품을 받는 구조이지만, 본질은 지역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공동체에 생기를 불어넣는 데 있다. 기부 행위로 지역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형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광주 동구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을 통해 지방정부와 시민이 협력하는 모범 사례를 만들어왔다. 단순한 행정 안내를 넘어 민·관이 함께하는 적극적 흥

모와 맞춤형 기부 유도 전략이 돋보였으며, 그 중심에는 임택 동구청장을 비롯한 자원봉사자의 자발적 참여가 있었다. 지역 사회단체, 소상공인, 청년 그룹까지 함께 나서면서 동구 전체가 하나의 캠페인 공동체가 됐다. 이러한 협력은 다른 지역에도 귀감이 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광주극장 보존 100년 프로젝트’와 ‘발달장애 청소년 E.T 야구단 지원’은 전국적으로 주목받았다.

그 결과 2년간 3만1578명이 참여해 33억여원의 기부금이 모였고, 이는 광주극장의 시설 개선과 청소년 야구단의 전국 대회 우승으로 이어졌다. 작은 기부가 지역의 문화와 희망을 살려낸 것이다. 특히 광주극장은 단순한 영화관을 넘어 시민의 기억과 추억이 담긴 공간으로, 기부를 통한 보존 사업은 문화 자산을 지키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다.

(사)광주동구자원봉사센터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의미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펼쳐왔다. 거리 홍보, SNS 콘텐츠 제작, 참여 독려 활동을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전개하며 고향사랑기부제가 공동체 회복을 이끄는 새로운 사회운동임을 보여 주고 있다.

앞으로는 지역 축제, 교육 프로그램,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과 연계한 홍보를 확대해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다. 작은 참여가 큰 변화를 만드는 경험을 확산시키는 것이 곧 제도의 성공으로 이어진다.

더 나아가 고향사랑기부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균형발전의 씨앗이 될 수 있다.

기부금이 복지, 교육, 문화, 환경 등 핵심 분야에 재투자돼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자립적 발전을 가능하게 하

기 때문이다.

또한 수도권 주민이 지방에 관심을 가지고 기부할 경우, 지역 특산물 소비와 교류 확대가 이뤄져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다. 결국 기부는 단순한 재정 보완이 아니라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촉매제이다.

이제는 광주 동구의 성공 사례를 넘어 전국 곳곳에서 자원봉사자가 이 운동을 선도해야 한다. 자원봉사자는 지역을 사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가치를 실천해온 시민이다. 고향사랑기부제야말로 자원봉사의 철학이 제도 속에서 실현되는 장이며, 대한민국이 함께 살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모범적 시민 실천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을 떠난 이들에게는 그리움의 표현이고, 지역 주민에게는 공동체 회복의 희망이며, 국가에는 균형발전의 출발점이다. 모든 시민이 고향사랑기부제의 홍보대사이자 실천가, 연대의 주체가 돼야 한다. 작은 정성이 모이면 큰 변화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가기 때문이다.

광주는 오랫동안 민주주의, 평화, 인권, 연대의 정신을 지켜온 도시이다. ‘사람 사는 세상’,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며 함께 행복한 공동체’를 꿈꾸어온 광주정신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철학과도 깊이 닿아 있다. 광주가 보여주는 실천은 곧 대한민국이 나아가길 제시하는 등불이다.

고향을 위한 나의 기부와 우리의 자원봉사는 지역을 살리는 작은 실천이자 큰 희망이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고향이 살아야 공동체가 행복하다.

지금, 우리의 마음과 손길을 고향으로 보내야 할 때이다. 이것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내는 길이다.

장을 던졌기 때문이다. 구례의 좁은 도로, 해남의 바닷가, 신안의 작은 섬들이 세계와 연결되는 순간, 지역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무대가 된다. 그 과정을 통해 주민이 체감하는 자부심과 자신감은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다.

물론 과제도 있다. 많은 관람 인파가 몰리면 교통과 숙박 불편은 반복된다. 안전 관리와 관람 편의, 그리고 지역민이 체감할 실질적 이익까지 놓치지 말아야 한다. “한철 장사”라는 냉소를 넘어서려면 축제 이후에도 재방문을 부르는 매력과 신뢰를 만들어야 한다.

이번 가을이 끝난 뒤 남아야 할 것은 기록이 아니다. 다시 찾고 싶은 경험, 주민들이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는 기억, 세계 속에서 전남이 보여준 존재감이다.

결국 진짜 승부는 경기장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 안에서 결정된다.

가을 전남이 던지는 질문은 단순하다. 대회를 치렀다는 사실로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이를 계기로 지역의 미래를 새롭게 써 내려갈 것인가. 그 답은 이제 전남의 선택에 달려 있다.

사설

전남 첫 적조피해 발생…방제·예찰 강화를

전남에서 올해 첫 적조 피해가 발생했다. 최근 여수시 돌산읍 4개 양식 어가에서 어류 폐사 신고를 여수시 등에 잇따라 접수한 것이다.

현장 조사 결과 참돔 7만마리, 돌돔 3만4000마리, 숭어 2000마리, 농어 500마리 등 모두 10만6500여마리가 폐사해 잠정 2억4800만원 상당의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 해상에서 적조 피해 발생은 2019년 이후 6년 만이다.

적조는 코클로리나움이라고 불리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증식해 해수면에 붉은색 띠를 형성하는 것을 말하며 바다 내 산소부족 현상을 야기시키고 어류의 아가미에 끼어 세포를 손상시켜 죽게 만든다고 한다.

6년 만에 적조피해가 발생한 것은 현재 코클로리나움이 생장하기 좋은 기후적인 요인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전남 낮 최고기온이 이달 들어 30~32도 수준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린 지난달보다 떨어진 게 바다 수온이 22~27도일때 가장 활발하게 생장하는 적조식물에 적합했다는 것이다.

또 전남 동부권을 중심으로 국지성 호우가 잇따르면서 육지에서 흘러 들어온 유기물이 적조 확대를 부추긴 점도 한 몫했다.

여기에 적조피해소에 큰 역할을 하는 대풍이 을 들어 단 한차례도 한반도 방향으로 접근하지 않았다는 점도 적조피해가 발생한 원인이 되고 있다. 문제는 전남해역에 고수온이 장기간 유지되면서 이들의 증식도 활발해 앞으로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여수와 고흥 등 전남 동부 남해 앞바다, 가막만에 이어 득량만에 적조 주의보가 추가 발령됐으며 완도 등 전남 서부 남해 앞바다에는 예비 특보가 내려졌다.

주의보 발령 해역에는 참돔, 감성돔 등 양식어류 6407만마리가 양식 중이며 이중 423만마리는 피해에 대비해 긴급 방류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전남도와 시·군은 특보 확대에 따라 방제와 예찰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29일부터 사업비 317억원을 확보, 황토 운반선, 포크레인 등 장비 51대와 선박 164척을 투입해 황토 5350t을 살포하는 등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다시는 적조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

광주 2028전국체전 반드시 유치해야

오는 2028년 제109회 전국체육대회 광주 유치를 위한 준비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가 최근 인공지능(AI)과 문화예술을 접목해 차별화된 전국체전을 만들겠다는 내용의 신청서 작성을 마무리한 것이다.

이번 신청서에는 AI, 문화예술, 시민참여 확대, 장애·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화합하는 체전 등 4대 목표가 담겨 있다.

먼저 AI 스마트체전을 위해 무인 셔틀버스 자율주행을 통한 경기장 수송 운영 등 그동안 광주시에서 연구 개발한 AI 서비스를 실증, 국민들이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문화·예술 융합체전을 위해 경기장에 관객들이 관람할 수 있는 작품들을 전시하는 등 예술경기장을 조성하고, 동구 충장로 축제 등 지역 고유의 정체성과 가치를 담은 문화 축제와 연계해 ACC·비엔날레 등 지역 문화 인프라를 활용키로 했다.

이어 시민과 함께 만드는 체전을 위해 인기종목 주간경기를 퇴근시간 이후인 야간경기로 변경해 관람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을 포함한 응원단 참여를 유도하며, 지역상점·숙박시설과 연계한 프로그램도 운영키로 했다고 한다.

특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어울림 체전을 만들기로 하고 경기장별 휠체어 동선을 사전에 확인해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점자 안내판과 음성안내 시스템을 재점검하며 장애인 전용차량 사전 배치를 통해 접근성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치신청서는 광주시와 협의 후 광주시장의 보증서와 광주시의회 의장의 확인서를 첨부해 오는 26일까지 대한체육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번에 유치에 성공하면 2007년 제88회 대회 개최이후 21년만이다.

특히 광주 전국체전은 올해 부산 전국체전 1100여억원, 내년 제주대회 1300여억원 등 비용이 많이 드는 다른 체전과 달리 2015하계유니버시아드 등 기존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어 655억원이 드는 저비용·고효율 대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광주시와 시체육회는 지역 체육인들의 열의인 2028 전국체전을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

회장·발행인·편집인 전용준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 치 부 370-7010 경 제 부 370-7020 사회교육부 370-7030 지역사회부 370-7040 문화체육부 370-7234 편 집 부 370-7082 사 진 부 370-7050	논 설 실 370-7060 뉴미디어본부 370-7222 임 원 실 370-7000 총 무 국 370-7093 사 업 국 370-7090 광 국 국 370-707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02-878-709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